IBK기업은행 금융그룹 IBK투자증권

Company Visit

Analyst 문경준
02) 6915-5776
juninearth@ibks.com

Not Rated

목표주가	-
현재가 (4/21)	8,1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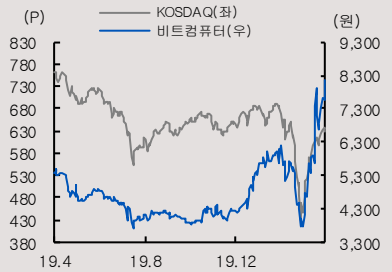
KOSDAQ (4/21)	628.77pt
시가총액	1,355억원
발행주식수	16,623천주
액면가	500원
52주 최고가	8,150원
최저가	3,700원
60일 일평균거래대금	195억원
외국인 지분율	1.1%

주주구성

조현정 외 3 인	26.64%

주가상승	1M	6M	12M
상대기준	52%	116%	85%
절대기준	104%	110%	53%

비트컴퓨터 주가추이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비트컴퓨터 (032850)

디지털 의료서비스의 고도화

원격의료를 포함한 디지털 의료서비스 고도화 수요 기대

최근에는 의료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해서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춰 비트컴퓨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론칭해 중소형 병의원에 서비스를 시작하였으며 중대형 병원을 위한 패키지화된 클라우드 시스템도 개발하여 구축 사업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의료기관에서 의료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자체 서버/네트워크 형태로 구축하는것 보다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최근 트랜드이다.

비트컴퓨터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클레머'를 개발 출시하였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라우드 시스템 접속 인원 또는 사용 데이터에 기반해서 요금을 지불하여 시스템 유지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비트컴퓨터 입장에서는 연속적이지 못한 SI수주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관심 받고 있는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SaaS서비스는 SI사업과 비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향후 일정 고객 수를 유치한 이후에 부가가치가 높은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용이 해진다. 향후 동사의 클라우드 사업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2020년 예상실적은 매출액 403억원(+7.7% yoy), 영업이익 53억원(-13.1% yoy)이다. 의료정보시스템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중심의 외형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진행중인 프로젝트 일부가 2Q 또는 하반기로 지연된 영향으로 실적은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1회성으로 발생된 충당금 및 코로나19 변수를 제거한 실적추이는 예년 성장 추이를 유지하며 우상향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원격의료 시장의 개화 시점에 계단식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위:억원,배)	2016	2017	2018	2019	2020E
매출액	348	319	328	374	403
영업이익	35	43	-22	61	53
세전이익	53	48	-6	86	62
지배주주순이익	42	36	-2	71	52
EPS(원)	250	216	-14	427	313
증가율(%)	-10.24	-13.88	적전	흑전	-26.7
영업이익률(%)	10.0	13.6	-6.6	16.2	13.2
순이익률(%)	12.0	11.2	-0.7	19.0	12.9
ROE(%)	11.0	8.7	-0.6	15.6	10.6
PER	21.9	25.8	-	10.2	24.4
PBR	2.3	2.2	2.0	1.5	2.6
EV/EBITDA	14.3	29.5	16.7	14.8	-

자료: Company data, IBK투자증권 예상

병원내 데이터 시스템의 고도화를 진행중

병원내 데이터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병의원의 의료 데이터 시스템 디지털화는 계속 진행중이다. 병원에서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던 슬립(Slip), 차트(Chart), 필름(Film), 종이(Paper)를 디지털화 하는 작업이 과거 10년간 빠르게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디지털 병원을 구축하는 단계를 넘어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고도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병원내 데이터들을 수집/분류하여 그동안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큰 덩어리 데이터(Big Data)를 활용해 의료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관의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 증가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도 그동안 각각 기관별 물리적 네트워크 자원을 보유하는 형태에서 네트워크 자원을 공유하는 클라우드 형태의 데이터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8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기관도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병원이 자체적으로 IT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노하우를 축적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관련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인프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국내 병의원 및 공공기관 그리고 유관 기관까지 관련 인프라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국내 의료정보산업 시장규모는 연간 10%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가며 2019년 기준 1,849억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이러한 성장세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데이터이용을 고도화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차원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경제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먼저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을 시작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직효율화, 고객서비스 개선 등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후행적으로 의료기관에서도 데이터 이용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으로 인한 기대효과

자료: 비트컴퓨터, IBK투자증권

의료정보 표준화/고도화를 위한 정부기관 출범 한국보건의료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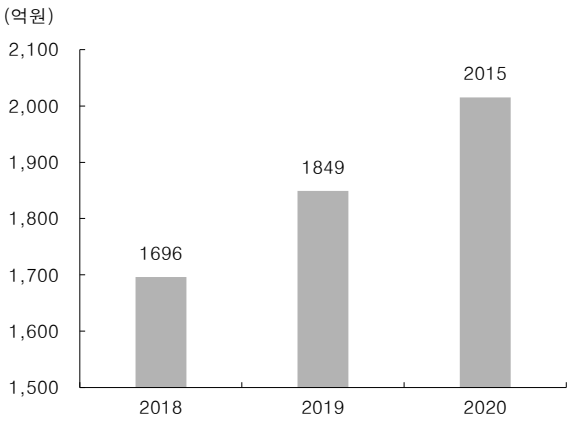
정부차원에서는 의료정보 정책 혁신을 위해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보건의료정보원(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재단법인)을 출범시켰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서울역 근처의 봉래빌딩에 사업소가 있으며 25명의 인원으로 조직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재 EMR(Electronic Medical Record)인증제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EMR 인증제를 통해 네트워크상의 데이터 관리 방식을 표준화시켜 의료 데이터의 교류 및 활용 정도를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는 EMR인증제 이외에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진료정보 교류사업, 스마트의료 시범사업, 의료데이터 정보 표준화/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패키지 & 클라우드를 통해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작업중

기관별 의료정보시스템이 구축되는 특징을 보면 2~3차 의료기관은 프로젝트 규모가 크지만 맞춤형 SI로 공급되어 시스템 개발 인력 및 자원 투입이 많다. 병원 입장에서도 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물리적 자원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의료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형태로 구축해서 이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춰 동사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론칭해 중소형 병의원에 서비스하고 있으며 중대형 병원을 위한 패키지화된 클라우드 시스템 개발 및 구축 사업도 시작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운용중인 PM/PA(원무관리), OCS(처방전달), PACS(의료영상저장), EMR(전자의무기록), EHR(Electronic Health Record), PHR(Personal Health Record), CRM(고객관리) 등의 의료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자체 서버/네트워크에 구축하기 보다는 AWS(아마존웹서비스) 또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해 데이터 접근성 및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최근 트랜드이다. 비트컴퓨터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 클레머(CLEMR)를 개발 출시하였다.

그림 2. 국내 의료정보 시장 규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IBK투자증권

그림 3. 디지털 헬스케어의 고도화가 진행중

자료: 비트컴퓨터, IBK투자증권

클라우드 기반
통합의료정보 서비스
클레머 출시

클레머는 기존 통합의료서비스에서 제공되던 원무(접수, 수납, 사전/사후심사 등), 진료(외래, 입원, 응급처방, 간호/수술/마취 등), 전자의무기록(EMR)작성, 진료지원(진단검사의학, 영상의학, 약제, 물리치료, 영양 등), ERP(인사/급여/회계/물류 등) 업무를 지원하며 고객은 선택에 따라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부가서비스로는 모바일 기반의 전자동의서, 고도화된 ERP, 모바일 환자 안내앱 서비스,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원격의료 연계서비스, 의약품 처방 최적화 서비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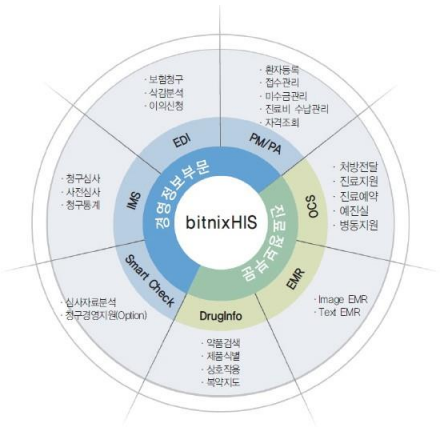
병의원 입장에서는 자체적인 OCS/EMR Server 구축없이 물리적 하드웨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자체구축 서비스는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어려우며 시스템 개발 후 시스템이 노후화 되면서 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의료정보 시스템 초기 구축 투자는 클라우드 시스템 대비 많은 투자금액이 필요하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라우드 시스템 접속 인원 또는 사용 데이터에 기반해서 요금을 지불하여 시스템 유지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비트컴퓨터 입장에서는 당장 연속적이지 못한 SI수주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관심 받고 있는 SaaS(Software as a Service)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 하는 것이 가능하다. SaaS서비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고도화 하면 SI사업과 비교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향후 일정 수 이상의 고객을 유치한 이후에 부가가치가 높은 수익사업을 전개하는 것도 용이해 진다.

그림 4. 비트컴퓨터의 비대면 의료서비스 – 키오스크

자료: 비트컴퓨터, IBK투자증권

그림 5. 중소병원형 통합의료정보 시스템 구성도 – bitnixHIB



자료: 비트컴퓨터, IBK투자증권
참조: BitnixHIB(Hospital information Business for small to mid size hospital)

표 1. 클라우드 기반의 의료정보 서비스 – CLEMR(클레머)

서비스	주요기능
기본서비스	-원무(접수, 수납, 사전심사, 사후심사 등) -진료(외래/입원/응급 처방 및 간호, 수술/마취 등) -전자의무기록(EMR, 영상 EMR 등) 작성 -진료 지원(진단검사의학, 영상의학, 약제, 물리치료, 영양, 중앙검사 등) -ERP(인사/급여, 회계, 물류, 자산 등)
(+)선택서비스	-모바일 기반의 전자동의서 -진료지원(핵의학, 병리, 사회기업, 방사선종양, 감염관리, 의료 질관리 등) -ERP(구분회계, 수요예측, 원가, 경영통계 등)
(+)부가서비스	-모바일 환자 안내 앱 M-도우미 -비트 비즈플레이(법인카드, 폰뱅킹, 가상계좌 등)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 -비트케어 플러스 -원격의료 연계 -드러그인포 플러스(의약품 처방 최적화 서비스) -메디전트 프로(청구자동심사)

자료: 비트컴퓨터, IBK투자증권

안정적인 실적추이
규제완화 시점에
계단식 성장 기대

2019년 실적은 매출액 374억원(+14.0% yoy), 영업이익 61억원(흑전 yoy)으로 매출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되었다. 동사의 핵심사업인 의료정보사업 매출액이 269억원으로 전년대비 18.5% 성장하며 외형성장을 이끌었다. 교육사업도 매출액 94억원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다. 기타사업으로 분류되는 임대사업은 9.6억원으로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트컴퓨터의 사업부별 매출비중은 의료정보사업으로 분류되는 의료정보시스템과 디지털헬스케어 사업이 각각 59.31%, 12.79%를 차지하며 교육사업 25.31%, 임대사업 2.59% 비중이다. 교육사업은 수익목적 보다는 공적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어 손익은 BEP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임대사업은 서울 강남본사 사옥의 일부를 임대해서 나오는 매출로 연간 약 10억원가량 발생된다.

2019년 큰 폭의 영업흑자 실현은 전사 매출액 상승에 따른 이익 개선 효과도 있었지만 2018년에 발생되었던 프로젝트손실충당부채 설정에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 2018년에 의료정보시스템 프로젝트 지연 및 손실관련 충당부채로 인식한 금액이 총 24.5억원이었으며 원가가 높았던 프로젝트가 반영되면서 21억원의 적자를 시현한 바 있다. 동사는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손실액을 예상하여 프로젝트손실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다. 지연되었던 프로젝트가 2019년에 진행되면서 손실충당부채 24.5억원을 그대로 환입하였고 전년대비 큰 폭의 이익성장을 하였다.

2020년 예상실적은 매출액 403억원(+7.7% yoy), 영업이익 53억원(-13.1% yoy)이다. 의료정보시스템과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중심의 외형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진행중인 프로젝트 일부가 2Q 또는 하반기로 지연된 영향으로 실적은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1회성으로 발생된 충당금 및 코로나19 변수를 제거한 실적추이는 예년 성장 추이를 유지하며 우상향하고 있으며 향후 국내 원격의료 시장이 개화 시점에 계단식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종목명	담당자	담당자(배우자) 보유여부			1%이상 보유여부	유가증권 발행관련	계열사 관계여부	공개매수 사무취급	IPO	회사채 지급보증	중대한 이해관계	M&A 관련
		수량	취득가	취득일								
해당 사항 없음												

투자의견 안내 (투자기간 12개월)

종목 투자의견 (절대수익률 기준)			
적극매수 40% ~	매수 15% ~	중립 -15% ~ 15%	매도 ~ -15%
업종 투자의견 (상대수익률 기준)			
바중확대 +10% ~	중립 -10% ~ +10%	비중축소 ~ -10%	

투자등급 통계 (2019.04.01~2020.03.31)

투자등급 구분	건수	비율(%)
매수	134	89.9
중립	15	10.1
매도	0	0